

##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Industry

허재완\* · 나종익\*\*

Hur, Jae-Wan · Rha, Jong-Ik

####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창조산업 범위에 대한 검토
- IV.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현황 및 특성
- V.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에 관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범위를 재설정하고, 소비자가 얻는 서비스에 따라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산업 입지계수를 도출하여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창조산업이 국토공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주로 대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둘째,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창조산업의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도권내부에서는 창조산업이 중심지역(서울)에서 주변지역(경기도)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창조산업의 교외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과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비해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은 거의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서울집중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조산업의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창조산업을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주저자)

\*\* Newcastle University 대학원(공동저자)

논문 접수일: 2012. 8. 10, 심사기간(1,2차): 2012. 8. 11 ~ 2012. 10. 19, 게재확정일: 2012. 10. 19

육성하려는 지자체에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도시지역은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에, 그리고 주변지역들은 기술서비스형이나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에 집중하는 공간적 분산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주제어: 창조산업, 공간적분포, 수도권집중화

The paper has attempted to redefine the scope of creative industry and to reclassify it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type of service available to consumers ; technical service creative industry, information service creative industry and amusement service creative industry. Furthermore the paper, based on the above definition, has aimed at investigating its locational characteristics empirically. Some interesting results are found as follows:

First, creative industry tends to specialize in the large cities rat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econd, creative industry has spatially concentrated into the Capital Regions during 2000-2009. Third, within the Capital Regions creative industry has spreaded out from the central place, Seoul, to its suburbs. Fourth, technology-oriented creative industry and information-oriented creative industry mainly specialized in Kyunggi area while leisure-oriented creative industry heavily clustered inside Seoul. This finding giv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a plan to boost creative industry. That is, regional specialization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creative industry. Large cities are asked to focus on amusement service creative industry while suburban area on technical service or information service creative industry.

□ Keywords: Creative Industry, Spatial Distribution, Urban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 I. 서론

20세기 초반의 경제구조는 생산성과 대량 생산을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하드웨어의 시대’였다. 그러다 1990년대에는 눈부신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시대’가 찾아왔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세계, 모방이 아닌 창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 및 문화로 승부

를 해야 하는 ‘창조의 시대’로 진입하였다<sup>1)</sup>. 즉,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조와 창의는 21세기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창조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경우, 이미 시민 5명 중에 1명이 창조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런던의 기반산업인 금융업과 그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창조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기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창조산업과 관련된 연구 역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산업분류체계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산업들을 창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창조산업의 발전정도는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지역에서 창조산업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창조산업의 공간적 입지패턴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및 지자체들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며, 3장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이 기반위에 4장에서는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해외 선행연구

창조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국외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창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

1) 2005년 8월 비즈니스위크에서는 ‘Get Creative: How to Build Innovative Companies’이라는 기사를 통해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앞으로의 경쟁 패러다임은 ‘지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도 지식 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시 만들기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창조산업의 범위와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유럽 및 북미의 도시 특히 대도시들은 제조업기반의 지역경제 재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찍부터 창조산업의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Oakley (2004)를 필두로 한 학자들이 창조산업의 육성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정책수단들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오고 있다. 한편 이와 맞물려 Florida (2002)의 창조계급론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창조도시에 관련된 연구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창조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창조적 계급(또는 창조적 인재)을 도시내부로 유인하여 도시의 창조성을 증대시켜 도시를 성장시킨다는 흐름은 공통적이다.

한편 창조산업의 범위와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창조산업을 정책화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실용적 기준이 없이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인식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서로 상이한 창조산업의 정의를 채택하는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창조산업의 실용적 범위에 대하여는 영국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 (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 의하여 1998년 최초로 제안되었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창조산업의 범위를 광고, 예술품, 건축기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레저,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 라디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Caves(2000)는 학술적 관점에서 창조산업을 '비영리적인 예술활동과 단조롭고 일상적인 영리활동의 관계'로 파악하여,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예술활동과 음반, 영화, TV, 출판, 패션, 게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예술적, 오락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Cunningham(2002)은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에 기원한 활동으로서 기술과 재능을 중시하며, 지적 재산의 활용을 통하여 잠재적인 부와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창조산업의 범위를 아날로그(예술, 공예, 골동품, 건축기술, 디자인), 상업 경제 부문(TV, 라디오, 영화, 음악, 공연예술, 패션), 디지털 신경제 부문(소프트웨어, 쌍방향 레저 소프트웨어) 등으로 세분류하였다.

그러나 최근 Pratt (2004)는 마이클포터의 가치사슬이론에<sup>2)</sup> 입각하여 창조산업을 구분

2) 가치사슬이론은 마이클 포터가 1985년 정립한 이론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각 단계 활동에서 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치사슬구조에 따라 창조산업의 4단계 가치사슬을 창작, 제조 및 제작, 분배와 생산, 교환 및 판매로 분류하였다(서광규, 2011). 이러한 Pratt의 가치사슬 구조는 이론적 근거가 탄탄해 최근 창조산업의 연구에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표 1> 해외학자들에 의한 창조산업의 범위

연구자	연구명	창조산업의 범위	비고
영국문화미디어 체육부(1998)	The Creative Industry Mapping Document	광고, 예술품, 건축기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레저,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 라디오	여러 국가에서 참조 하여 창조산업의 범 위를 설정함.
Caves (2000)	Creative Industry : Contacts between Arts and Commerce	시각예술(조각, 미술), 행위예술(연극, 무용, 오페라), 패션, 영화, 녹음활동, 출판, 장난감 및 게임, TV	창조산업을 영리 / 비영리로 분류함.
Cunningham (2002)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 Theory,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s	광고, 건축, 예술과 골동품, 공예, 디 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쌍방향 레 저 소프트웨어, 음악, TV와 라디오, 공연예술, 출판과 소프트웨어 등 15개 산업으로 분류	아날로그, 상업 경제, 디지털 신경제 등으로 세분류함.
Pratt (2004)	Creative Clusters : Towards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 Industry Production System.	창조산업의 범위를 창작, 제작, 재제작 및 대량유통, 소비 및 교환 등 네 단계 의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자 함.	여러 국내 연구에서 Pratt의 가치사슬 구조를 활용.

## 2. 국내 선행연구

창조산업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문모(2005), 이희연(2007), 장윤정 외(2009)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구문모(2005)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조산업의 실용적 범위를 설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구문모(2005)는 영국의 사례를 많이 따랐으며, 특히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창조산업의 범위를 총 9개의 산업으로 구체화시켰다. 즉 창조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으로 영화, 음반·비디오·게임, 출판·인쇄, 방송물, 문화재, 캐릭터,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등으로 정의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중 9개의 산업을 도출하였다. 구문모(2005)의 연구가 창조산

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활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각 단계 활동의 강점, 약점,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업 분류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나 창조산업의 성격을 문화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김의준 외, 2009).

이에 비해 황은정 (2007)은 Pratt(2004)의 가치사슬모형에 근거하여 영국 미디어스포츠부가 정의한 창조산업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및 게임과 R&D를 추가시켜 11개 산업으로 재 정의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90여개의 업종을 11개의 창조산업 분류군에 포함시켜 창조산업을 재분류하였다. 즉 건축 기술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컴퓨터 설계 및 자문업, 연구개발업, 예술가 등이 창작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인쇄업, 영상 게임기 제조업, 악기 제조업 등 창조산업 관련 제조업은 제작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광고 관련업종이나 방송업, 출판업, 사진촬영업종 등은 제작 및 유통으로 분류하였으며, 창조산업 관련 도,소매업종이나 임대업종은 소비 및 교환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 지역별 창조산업의 활성화 정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치구별로 창조산업 90여개 업종의 입지계수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창조산업이 강남구, 여의도, 도심부에 선택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의 경우 건축,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 음악 등 많은 창조산업부문이 지역적 특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정(2007)의 연구는 가치사슬 개념을 국내에 최초로 적용하여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다는 공헌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취약하고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장윤정 외 (2009)는 창조산업을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었던 Caves (2000)와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구분하였던 Pratt (2004)방식을 적용하여 산업군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창조산업이 도시상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창조산업1군(시각디자인업,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창조산업5군(인쇄업, 사진촬영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업 등), 창조산업6군(출판업, 발행업,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업 등)은 해당 창조산업의 분포가 많을수록 도시상업 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조산업2군(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제품 디자인업, 기타디자인업)과 창조산업4군(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악기 제조업, 영상 게임기 제조업 등)은 도시상업 활력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이 나타났다.

<표 2> 창조산업의 범위 설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창조산업의 범위 및 분류	비고
구문모 (2005)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음반 / 비디오/ 게임 출판 / 인쇄물, 방송, 영화, 문화재, 캐릭터,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 공예품 / 기타 문화컨텐츠 등 9개 산업	-
황은정 (2007)	창조산업의 분포특성과 프로젝트 군집화	건축, 디자인, 광고, 방송, 음악, 소프트웨어 / 게임, 연구개발, 문화재, 공연예술, 출판, 영화/비디오/사진 등 11개 산업 94개 업종	입지계수 / 집중치 / 클러스터 분석
김의준 외 3인 (2009)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 분석	구문모(2005)의 분류를 공연 / 영화 / 방송 출판 / 미디어 자문 / 건축으로 재분류	-
장운정 외 (2009)	서울의 창조산업 분포 특성과 도시상업활력의 공간회귀분석	Caves, Peatt의 기존 분류를 적용하여 10군으로 창조산업을 재분류	입지계수 / 공간회귀분석

### III. 창조산업 범위에 대한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국제적으로 창조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학자마다 분류방식에 대해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가치사슬이론에 입각한 창조산업 범위설정이 바람직하다는데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 국내 연구 중에는 그래도 황은정(2007)이 제안한 창조산업의 분류체계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황은정(2007)에 의한 창조산업분류는 2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산업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R&D관련 산업과 통신업이 바로 그것이다. 황은정(2007)은 통신업을 창조산업의 범

3) 창조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노동, 자본, 지대 이외의 다른 하나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산출물을 만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산업 산출물의 상품화와 유통과정의 가치사슬을 따라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점이다. 핵심 창조산업 종사자는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토지가 없어도 개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아이디어를 통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를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소비자에게로 전달하는 것이 창조적인 가치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류가 필요하다.

위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통신업은 크게 유선통신업과 무선통신업으로 구분된다. 유선통신업의 경우 인터넷 회선임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업관련 서비스라기보다는 지원하는 임무에 가깝기 때문에 가치사슬 구조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창조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선통신업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무선통신업을 대표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첨단서비스 개발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산기술, 하부구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통신관련 전자부품기술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확보되는 고도의 두뇌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과거 통화 서비스 제공 등 통신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무선 통신 업체들은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업무로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콘텐츠가 퍼져나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보면 무선통신업은 가치사슬의 유통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창조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황은정(2007)은 R&D관련산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함으로써 주요한 일부산업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R&D 연관산업 즉 연구개발서비스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크게 (i)연구개발업, (ii)연구개발 활동지원업, (iii)연구개발기반지원업으로 나누어진다(표 3). 황은정(2007)은 이 중에서 연구개발업만을 R&D관련 산업으로 분류하여 창조산업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제외시켰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기반지원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로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지원업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연구개발 활동지원업은 표의 세부업종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산출물을 가치사슬 관계에 따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총칭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지원업은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두 번째는 황은정(2007)에 의한 창조산업의 분류가 너무 미시적이어서 창조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황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범위를 11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건축기술, 전문디자인, 광고, 뉴스제공 및 방송, 음악 및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연구 및 개발, 문화재 관련 산업, 공연예술, 출판, 영화/비디오/사진/미술품 등이 그것이다. 만약 이들 11개 산업을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산업들끼리 그룹화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면 창조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류하는데 훨씬 유

4) 이러한 이유로 2011년 11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창조산업에 포함시켰다.



용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창조산업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i)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 (ii)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iii)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자 한다<sup>5)</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범위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연구개발 연관산업의 범위 및 세부업종

구분	세부업종	
연구개발 연관산업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디자인업
	연구개발기반 지원업	연구개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업무

5) 즉, 창조산업 생산자는 건축기술, 연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전문디자인, 광고 등을 통하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무선통신, 출판, 포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영화, 비디오, 사진, 미술품, 완구, 음악, 문화재, 공연예술 등을 통해서는 위락을 제공하게 된다.

<표 4> 창조산업의 유형화와 세부업종

세부업종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	<p>&lt;건축기술&gt;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 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환경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p> <p>&lt;연구개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gt;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 연구 개발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lt;전문디자인업&gt; 인테리어 디자인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 기타 디자인업</p> <p>&lt;광고업&gt; 광고 대행업 / 옥외 및 전시광고업 / 광고매체 판매업 / 광고물 작성업 / 그 외 기타 광고업</p>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p>&lt;뉴스 및 방송통신&gt; 뉴스 제공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라디오 방송업 / 지상파 방송업 / 프로그램 공급업 / 유선방송업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방송장비 제조업 / 이동전화기 제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통신업</p> <p>&lt;출판&gt;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 신문 발행업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 만화 출판업 / 기타 서적 출판업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 기타 인쇄업 / 재판 및 조판업 / 제책업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서적 임대업</p> <p>&lt;지식정보&gt;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p>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	<p>&lt;영화 / 비디오 / 사진 / 미술품 / 음악 및 음반&gt;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영화관 운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광학재료 제조업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 상업용 사진 촬영업 / 사진 처리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 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p> <p>&lt;게임 및 장난감&gt; 영상 게임기 제조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p> <p>&lt;문화재 관련 산업&gt; 박물관 운영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p> <p>&lt;공연예술&gt; 공연시설 운영업 / 연극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 / 기타 공연단체/ 공연예술가 / 공연 기획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매니저업 / 악기 도매업 / 악기 소매업 / 악기 제조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의류 임대업 / 비공연 예술가</p>

## IV.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현황 및 특성

### 1. 전체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앞에서 새롭게 정의한 창조산업 범위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를 이용한 창조산업 입지계수<sup>6)</sup>를 2개년도 대하여 각각 추정하였다<sup>7)</sup>. 다음의 <그림 1>은 그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우리는 창조산업의 공간적 패턴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창조산업이 주로 대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에서 그리고 지방은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창조산업이 대부분 고부가가치형 성장산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대도시 지역들이 창조산업의 육성에 남다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보여진다. 즉 대도시의 지가상승 및 여건변화로 대도시의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창조산업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서울의 산업구조변화추이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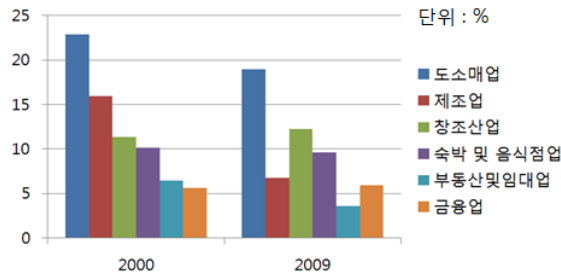
<그림 2>에 의하면 2000년에는 서울의 산업구조에서 도매, 소매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제조업과 창조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이었다. 하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매, 소매업과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반면 창조산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전산업 중 16%에 육박하였으나 2009년에는 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년간 서울에 입지하고 있던 제조업은 비수도권지역과 동남아, 중국 등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이 있던 자리를 창조산업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구로와 가산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

6)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LQ I = \frac{j \text{ 지역 } I \text{ 산업 종사자수} / j \text{ 지역 총 종사자수}}{\text{전국 } I \text{ 산업 종사자수} / \text{전국 총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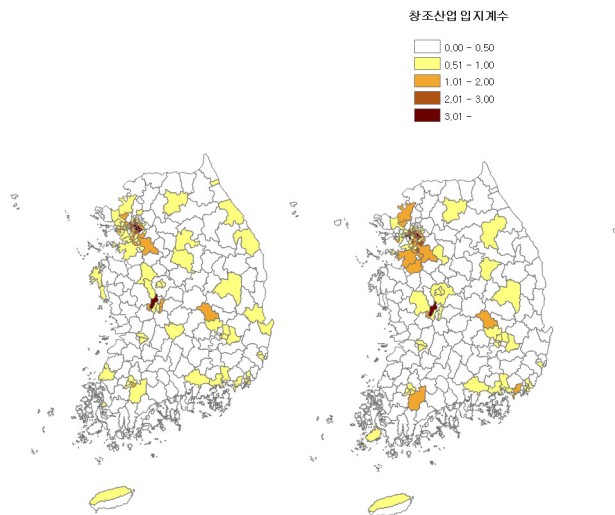
7) 본 연구에서 창조산업의 공간적 특화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LQ(입지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황은정(2007), 장윤정 외(2009) 등 관련 선행연구들이 모두 LQ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LQ기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LQ기법이 비록 단순한 기법이긴 하지만 산업의 공간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기에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 후반만 하더라도 각종 공장들이 밀집하고 있었으나 디지털단지로 전환된 이래 창조산업 관련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서울특별시 산업 구조 변화

두 번째는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창조산업의 특화현상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창조산업의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2000년과 2009년의 창조산업 입지계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2000년에는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서 창조산업 특화현상이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경기 남부지역의 대부분 및 북부지역까지 창조산업의 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광주지역만이 창조산업 특화도가 증가된 형상을 보일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 2000년과 2009년 창조산업 입지계수 변화

이러한 사실은 <표 5>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특화도가 가장 높은 기초 자치단체를 정리한 <표 5>에 의하면 2000년도 전국에서 창조산업이 가장 특화한 지역은 대전의 유성구였다<sup>8)</sup>. 그러나 2009년에는 서울 금천구가 전국에서 가장 창조산업이 특화한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sup>9)</sup>. 대전 유성구의 입지계수는 동기간 동안 5.50에서 4.05로 크게 낮아진 반면 서울의 경우 3.72에서 4.06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대부분의 비수도권지역들은 구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9년의 입지계수 값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곳이 많다.

<표 5> 시도별 창조산업 입지계수 최상위 자치단체

	입지계수 최상위 자치단체 (2000년)	입지계수	입지계수 최상위 자치단체 (2009년)	입지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3.72	금천구	4.09
인천광역시	부평구	1.40	연수구	1.02
경기도	과천시	2.07	과천시	1.95
부산광역시	동구	1.11	강서구	1.08
대구광역시	중구	1.18	중구	1.20
광주광역시	동구	1.12	동구	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5.50	유성구	4.05
울산광역시	중구	0.83	남구	0.70
충청남도	계룡시	1.71	계룡시	1.78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	1.00	청주 상당구	0.84
경상남도	마산시	0.89	창원시	0.90
경상북도	구미시	1.14	구미시	1.70
전라남도	영광군	0.80	화순군	1.26
전라북도	전주 완산구	0.92	전주 완산구	0.68
강원도	춘천시	0.87	춘천시	0.82
제주도	제주시	0.62	제주시	0.65

세 번째 수도권내부에서는 창조산업이 중심지역(서울)에서 주변지역(경기도)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른바 창조산업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은 2000년과 2009년 서울특별시의 창조산업 입지계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9년간 창조산업의 입지계수가 증가한 곳은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세 곳이며, 창조산업의 비중이

8)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R&D산업의 활성화가 주 요인이었다.

9) 이는 아마도 구로디지털단지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증가한 곳은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동구 등 6개 구에 불과하다. 22개의 구에서 창조산업 입지계수가 하락하였고, 19개 구에서 창조산업 비중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금천구와 구로구의 입지계수와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 산재하였던 창조산업 기업들이 9년 사이에 금천구와 구로구로 이전하였거나, 새로 설립된 창조산업 기업들이 금천구와 구로구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서울특별시 자치구 별 창조산업의 입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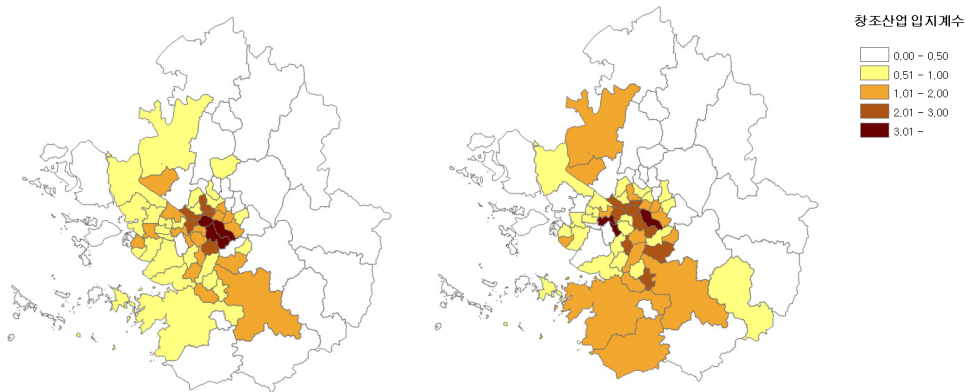
	2000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2009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종로구	2.45	13.11%	↓ 1.96	↓ 12.26%
중구	2.69	14.30%	↓ 2.18	↓ 13.66%
용산구	3.57	19.24%	↓ 2.65	↓ 16.60%
성동구	1.42	7.44%	↓ 1.35	↑ 8.42%
광진구	1.37	7.67%	↓ 1.20	↓ 7.50%
동대문구	1.13	6.02%	↓ 0.79	↓ 4.96%
중랑구	0.47	2.49%	↓ 0.26	↓ 1.64%
성북구	0.92	4.93%	↓ 0.70	↓ 4.38%
강북구	0.56	2.97%	↓ 0.29	↓ 1.81%
도봉구	0.41	2.16%	↓ 0.21	↓ 1.32%
노원구	0.45	2.38%	↓ 0.29	↓ 1.79%
은평구	0.73	3.85%	↓ 0.50	↓ 3.16%
서대문구	0.91	5.01%	↓ 0.75	↓ 4.72%
마포구	2.89	15.31%	↓ 2.67	↑ 16.73%
양천구	0.93	5.07%	↑ 1.11	↑ 6.97%
강서구	1.01	5.30%	↓ 0.70	↓ 4.38%
구로구	1.06	5.68%	↑ 3.07	↑ 19.24%
금천구	1.89	9.59%	↑ 4.09	↑ 25.60%
영등포구	2.51	13.72%	↓ 2.25	↑ 14.11%
동작구	1.34	7.21%	↓ 0.73	↓ 4.57%
관악구	1.17	6.45%	↓ 0.86	↓ 5.36%
서초구	3.18	17.35%	↓ 2.67	↓ 16.70%
강남구	3.72	20.55%	↓ 3.26	↓ 20.44%
송파구	1.67	8.94%	↓ 1.56	↑ 9.75%
강동구	0.81	4.42%	↓ 0.60	↓ 3.78%

이에 비해 경기도에서는 동기간 동안 수많은 창조산업이 이전 및 탄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원 (권선구, 팔달구), 성남 (중원구, 분당구), 안양(동안구), 파주시 등지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은 경기도의 창조산업 입지계수와 창조산업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의하면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창조산업의 절대비중이나 상대적 특화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팔달구, 과천시, 성남시 중원구 등이 입지계수와 전산업 중 창조산업의 비중측면에서 경기도의 창조산업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종사자 수는 22만 여명에서 28만 여명으로 약 30% 정도 증가한 반면 수도권의 창조산업 종사자 수는 54만 여명에서 76만 여명으로 40%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36%가 증가하여 여러 창조산업 기업이 경기도에 집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경기도 주요 자치단체 별 창조산업의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2009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수원 장안구	0.78	4.81%	0.78	↑ 4.88%
권선구	1.08	6.69%	↑ 1.41	↑ 8.81%
팔달구 <sup>10)</sup>	0.54	3.80%	↑ 2.01	↑ 12.57%
성남 수정구	0.42	3.14%	↑ 0.62	↑ 3.89%
중원구	0.85	5.26%	↑ 1.85	↑ 11.59%
분당구	1.61	9.69%	↑ 2.89	↑ 18.12%
의정부시	0.51	3.51%	↓ 0.42	↓ 2.64%
안양 만안구	0.57	3.99%	↑ 0.70	↑ 4.41%
동안구	1.48	8.77%	↑ 2.30	↑ 14.38%
부천 원미구	0.61	4.07%	↑ 0.71	↑ 4.44%
소사구	0.80	3.68%	↓ 0.30	↓ 1.86%
오정구	0.81	4.82%	↑ 0.90	↑ 5.65%
광명시	0.41	2.91%	↓ 0.37	↓ 2.29%
평택시	0.42	2.70%	↑ 1.05	↑ 6.60%
동두천시	0.21	1.76%	↑ 0.28	↓ 1.75%
안산시	0.61	3.95%	↑ 0.65	↑ 4.05%
고양 덕양구	0.46	3.30%	↑ 0.48	↓ 3.00%
일산구	1.06	7.18%	↑ 1.21	↑ 7.55%
과천시	2.07	11.89%	↓ 1.95	↑ 12.18%
구리시	0.33	2.72%	↑ 0.51	↑ 3.20%
남양주시	0.36	2.48%	↓ 0.32	↓ 2.02%

	2000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2009년 입지계수	전산업 중 창조산업 비중
오산시	0.35	4.10%	↑ 0.36	↓ 2.24%
시흥시	0.69	4.14%	↓ 0.36	↓ 2.27%
군포시	1.36	7.81%	↓ 0.91	↓ 5.72%
의왕시	0.76	4.51%	↑ 1.11	↑ 6.92%
하남시	0.27	2.22%	↑ 0.34	↓ 2.15%
용인시	1.32	7.77%	1.32	↑ 8.30%
파주시	0.85	5.01%	↑ 1.51	↑ 9.44%
화성시	0.94	5.39%	↑ 1.01	↑ 6.33%



<그림 3> 2000년과 2009년 수도권 창조산업 입지계수의 변화

## 2. 유형별 창조산업의 공간적 특화현황: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을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창조산업 전체로서가 아니라 세부 유형별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수도권의 경우 창조산업의 성장속도가 느리고 창조산업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0) 수원시 팔달구가 2003년 11월 24일부로 팔달구와 영통구로 분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팔달구와 영통구의 자료를 합하여 사용하였음. 고양시 일산구 (2009년 자료 일산동구, 일산서구), 안산시 (2009년 단원구, 상록구) 등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수도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조산업 유형별 입지계수를 추정한 결과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리되었다. 즉 2000-2009년 기간 동안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의 지역특화도가 빠르게 증가한 곳은 서울의 3개구(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의 5개 지역(수원시 권선구 및 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및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의 특화도가 급증한 자치단체는 서울의 2개구(양천구, 구로구), 경기도의 4개지역(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오정구, 평택시, 파주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급증한 자치단체는 서울의 6개구(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경기도 1개 지역(과천시)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창조산업 유형별 입지계수 비교

지역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서울 특별시	종로구	-	-	-	-	1.77	2.91
	용산구	-	-	-	-	1.58	2.60
	광진구	-	-	-	-	1.43	2.01
	마포구	2.34	2.51	-	-	1.72	2.53
	양천구	-	-	1.18	1.90	-	-
	구로구	1.04	4.23	1.11	1.50	-	-
	금천구	0.48	5.56	-	-	-	-
	서초구	-	-	-	-	1.66	2.03
	강남구	-	-	-	-	2.26	2.81
수원시	권선구	1.43	1.99	-	-	-	-
	팔달구	0.63	2.30	-	-	-	-
성남시	중원구	0.50	1.83	-	-	-	-
	분당구	2.43	3.36	1.09	2.68	-	-
안양시	동안구	2.07	3.27	-	-	-	-
부천시	오정구	-	-	1.52	2.44	-	-
과천시		-	-	-	-	1.58	2.81
평택시		-	-	0.45	3.25	-	-
파주시		-	-	1.44	4.45	-	-

2000-2009년간 서울시에서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 세 곳에 입지한 산업단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0년 이후 마포구의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구로구의 구로디지털

단지, 금천구의 가산디지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여러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있는 디지털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는 196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던 공단이었으나 2000년 서울디지털단지로 명칭을 바꾸면서, IT 벤처기업타운으로 변모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약 7,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산업 중 비제조업의 비중이 65%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디지털단지에 종사하는 인재들의 업종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구로구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많은 종사자가 분포하였으며, 가산디지털단지가 있는 금천구에는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3,882명) 순으로 많은 창조산업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특화지역들의 주요 업종

지역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 중 지난 9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
서울 특별시	마포구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구로구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천구	연구개발업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수원시	권선구	연구개발업
	팔달구 (영통구)	연구개발업
성남시	중원구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분당구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안양시	동안구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한편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의 경우 서울의 경우 양천구와 구로구에서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10). 양천구의 경우 지난 2003년 SBS방송이 목동에 신사옥을 건립하였는데, 이로 인해 1,000여명이 넘는 방송업 관계자가 양천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한국 방송회관, 기독교방송국(CBS), 스카이라이프 등 기존에 양천구에 입지해 있던 방송업종을 모두 합할 경우 양천구의 방송업 종사자 수의 입지계수는 무려 10.98에 이를 정도로 양천구의

기반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로구 역시 양천구와 마찬가지로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진 곳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sup>11)</sup>에 종사하는 인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도 방송 및 무선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당구에는 지난 9년간 수많은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종사자가 집중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sup>12)</sup> 종사자가 4,264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0>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 특화지역들의 주요 업종

지역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중 지난 9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
서울 특별시	양천구	지상파, 라디오, 유선, 위성 방송업
	구로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수원시	팔달구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성남시	중원구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제조업
	분당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부천시	오정구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제조업
평택시		이동전화기 제조업
파주시		출판 및 인쇄업

서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9년간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급증한 곳은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과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이며,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보다는 서울에 집적하고 있다<sup>13)</sup>(표 11). 서울 종로구에는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 중에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가장 많은 종사자가 있다. 약 8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예술품 및 골동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국내 최대의 공연시설 밀집지역 답게 공연시설 운영업에 6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도 지난 9년간

1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은 경제정보제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구축, 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 음악파일다운로드서비스, 증권정보제공, 도로교통 정보제공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업종이다.

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은 인터넷신문, 인터넷 자료 검색서비스, 인터넷 검색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검색 포털서비스, 정보 검색 서비스, 전자 메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포털 업체와 인터넷 신문사 등이 이에 속한다.

13)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과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은 서울 보다는 경기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sup>14)</sup>이다. 광진구에는 약 500여 명의 인원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역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은 전국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 종사자 14,163명 중 35%가 서초구와 강남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에는 약 1,500여 명이 사진 및 광학제품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도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에도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1> 자치단체별 지난 9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 (위락 서비스)

지역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 중 지난 9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
서울 특별시	종로구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공연시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용산구	박물관 운영업
	광진구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마포구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서초구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강남구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사진 및 광학제품 도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경기도	과천시	박물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3. 유형별 창조산업의 특화요인 검토: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산업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유형별 지역특화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형별로 창조산업의 지역특화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화할당분석을 시도하였다.

변화할당분석은 특정산업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여기에서는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상정한다. 즉, 국가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 NGE),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 IME), 그리고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 RSE)가 그것이다.

14) 전시 및 행사대행업은 행사대행, 패션쇼기획서비스, 파티대행, 전시시설 연출, 기획 대행, 이벤트산업, 산업박람회 대행 및 기획서비스, 결혼식 행사대행 등을 포함하는 업종이다.

국가성장효과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고용증가분(혹은 부가가치) 중에서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으로 유발된 고용(혹은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sup>15)</sup>. 반면 산업구조효과는 지역이 전국의 고성장산업(혹은 저성장)에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고성장하는 산업으로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 일 경우에는 양(+)<sup>16)</sup>의 값을 가지고, 그 반대로 저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높을 때는 음(-)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지역할당효과는 다른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보여준다. 지역의 특정산업의 성장률이 전국의 해당 산업 성장률보다 크면 양(+)<sup>17)</sup>이 되고, 작으면 음(-)의 값이 된다<sup>16)</sup>.

한편 변화할당분석에서는 지역의 성장요인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 양(+)<sup>17)</sup>의 요인과 음(-)의 요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의 성장 유형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i)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양(+)<sup>17)</sup>인 유형으로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집적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경우, (ii) 산업구조효과가 양(+)<sup>17)</sup>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sup>17)</sup>인 유형으로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경쟁력은 떨어지는 경우, (iii) 산업구조효과가 음(-)<sup>17)</sup>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양(+)<sup>17)</sup>인 경우로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입지경쟁력이 높아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iv)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음(-)<sup>17)</sup>인 경우로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지여건도 낙후되어 있어 발전가능성이 취약한 경우로 나뉘어진다<sup>17)</sup>.

〈표 12〉는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의 변화할당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의하면 이들 산업이 특화된 마포구를 비롯한 8개 지역 모두 산업혼합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sup>17)</sup>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지역들이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에 특화된 것은 산업구조적 측면이나 입지경쟁력 측면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화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경우 입지경쟁력 보다는 산업구조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구로구나 금천구의 경우는 입지경쟁력 요인이 압도적으로 우수하여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들이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그러므로 이 효과는 전국적 차원에서 해당 산업이 성장산업 인지 아니면 사양산업 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6)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성장효과는 지역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성장의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7) 지역 성장유망산업으로는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양(+)<sup>17)</sup>인 산업이 최선이며, 두 효과 중 하나만 양(+)<sup>17)</sup>이라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산업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효과가 모두 음(-)<sup>17)</sup>인 열위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종전환을 해야 할 산업을 말한다.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합을 순상대변화효과(net relative change effect)라고 하며, 이 값이 양(+)<sup>17)</sup>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이다.

〈표 12〉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의 변화할당 분석

지역		고용변화	변화할당분석		
			$N_i$ (국가성장효과)	$M_i$ (산업구조효과)	$S_i$ (지역할당효과)
서울 특별시	마포구	8,681	1,907	3,577	3,197
	구로구	22,810	754	1,414	20,642
	금천구	33,093	320	600	32,173
수원시	권선구	2,842	544	1,020	1,278
	팔달구 (영통구)	14,338	503	943	12,892
성남시	중원구	4,697	194	365	4,138
	분당구	14,774	1,076	2,018	11,680
안양시	동안구	11,099	1,129	2,117	7,853

한편 〈표 13〉은 지난 9년간(2000-2009)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급증한 지역의 변화할당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의 경우와 달리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에 특화된 지역들은 모두 산업구조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지역할당효과는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서비스형 산업들이 이들 지역에 특화된 이유가 지역의 양호한 산업구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역의 입지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관련 창조산업들이 이들 지역에 집적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의 변화할당 분석

지역		고용변화	변화할당분석		
			$N_i$ (국가성장효과)	$M_i$ (산업구조효과)	$S_i$ (지역할당효과)
서울 특별시	양천구	1,455	506	-238	1187
	구로구	1,942	583	-274	1678
수원시	팔달구	4,991	402	-189	4778
성남시	중원구	1,075	450	-212	837
	분당구	5,987	349	-164	5802
부천시	오정구	1,048	367	-173	854
평택시		8,297	222	-105	8180
파주시		6,723	365	-172	6530

마지막으로 <표 14>는 지난 9년간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급증한 지역의 변화할당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산업구조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지역할당효과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의 경우도 산업구조 여건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높은 입지경쟁력으로 창조산업이 특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여타 지역과 달리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지역이 특이하게도 국가성장효과가 지역할당효과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강남구 지역과 서초지역에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이 집중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아니라 동 기간 동안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힘입은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14>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의 변화할당 분석

지역		고용변화	변화할당분석		
			$N_i$ (국가성장효과)	$M_i$ (산업구조효과)	$S_i$ (지역할당효과)
서울 특별시	종로구	1,419	926	-1147	1640
	용산구	390	440	-545	495
	광진구	355	322	-399	432
	마포구	1,445	533	-660	1572
	서초구	839	1120	-1388	1107
	강남구	1,403	2760	-3419	2052
경기도	과천시	278	117	-145	306

이상의 변화할당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1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과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의 공간적 특화현상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높은 입지경쟁력에 기인한 바가 큰 반면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은 입지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호한 산업구조를 갖춘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유형별 창조산업 변화할당분석 결과요약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권선구 팔달구, 중원구 분당구, 동안구	없음	없음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	없음	없음	양천구, 구로구 팔달구, 중원구 분당구, 오정구 평택시, 파주시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	없음	없음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과천시

## V.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에 관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범위를 재설정하고, 소비자가 얻는 서비스에 따라 기술 서비스형 창조산업,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 위락 서비스형 창조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산업 입지계수를 도출하여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창조산업이 국토공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주로 대도시 및 주변지역에 특화되어 있다. 둘째,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창조산업의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도권내부에서는 창조산업이 중심지역(서울)에서 주변지역(경기도)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창조산업의 교외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술서비스형 창조산업과 정보서비스형 창조산업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비해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은 거의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서울집중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조산업의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창조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및 지자체에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도시지역은 위락서비스형 창조산업에, 그리고 주변지역들은 기술서비스형이나 정보



서비스형 창조산업에 집중하는 공간적 분산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또한 창조산업의 균형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즉 중소도시 지역 및 비수도권지역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정책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것은 본 연구가 2000-2009년 기간동안의 연속적인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및 2009년의 두 개년도 자료만을 이용한 비교정태 분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연도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반 결론들은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인혜. (2010). “영국의 창조산업과 여타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문모. (2005).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향토서울』, 제6권 제4호, pp.101-120.
- 구문모. (2005).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97-223.
- 김의준 외. (2009).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2호 제 58집, pp.13-34.
- 박재운 외. (2011). “한국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구조와 유발효과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논집』, 제29권 제2호, pp.153-185.
- 서광규. (2011, 12. 29). “스마트 클라우드 <2회> 가치사슬 변화”, 전자신문
- 이상직. (2011). “한국 전시산업의 발전방안”, 2011, 산업연구원
- 이정훈 외. (2004).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희연 외. (2008).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국토연구원
- 장윤정 외. (2009). “서울의 창조산업 분포특성과 상업활력의 공간회귀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 제44권 제6호 통권173호, pp.51-64.
- 정병순. (2010). “대도시 서울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와 산업뉴타운”, 『산업입지』 제38호, pp.11-24.
- 정의홍. (2011).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류에 따른 산업별 입지요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콜레트 헨리 외. (2010). 『창조산업과 기업가 정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황은정. (2007). “창조산업의 분포특성과 프로젝트 조직의 군집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란. (2008). “창조산업 육성과제 타당성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Florida, Richard,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2002
- John Hartley. (2008). “From the Consciousness Industry to Creative Industries”, History, Theory & Method, pp. 231-244.
- Oakley, K.. (2004). “Not so cool Britannia: the role of the creative industries in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7: 67-77
- Pratt. (2004). “Creative Clusters : Towards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 Industry Production System”,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pp. 50-66.
- S. Cunningham. (2002).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Theory,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s”,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and Policy : Quarterly Journal of Media Research and Resources, pp. 54-65.

<부록 1> 전국 모든 시/군/구의 창조산업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서울특 별시	종로	2.45	1.96	경기도	만안	0.57	0.70
	중구	2.69	2.18		동안	1.48	2.30
	용산	3.57	2.65		원미	0.61	0.71
	성동	1.42	1.35		소사	0.80	0.30
	광진	1.37	1.20		오정	0.81	0.90
	동대문	1.13	0.79		광명	0.41	0.37
	중랑	0.47	0.26		평택	0.42	1.05
	성북	0.92	0.70		동두천	0.21	0.28
	강북	0.56	0.29		안산	0.61	0.65
	도봉	0.41	0.21		덕양	0.46	0.48
	노원	0.45	0.29		일산	1.06	1.21
	은평	0.73	0.50		과천	2.07	1.95
	서대문	0.91	0.75		구리	0.33	0.51
	마포	2.89	2.67		남양주	0.36	0.32
	양천	0.93	1.11		오산	0.35	0.36
	강서	1.01	0.70		시흥	0.69	0.36
	구로	1.06	3.07		군포	1.36	0.91
	금천	1.89	4.09		의왕	0.76	1.11
	영등포	2.51	2.25		하남	0.27	0.34
	동작	1.34	0.73		용인	1.32	1.32
	관악	1.17	0.86		파주	0.85	1.51
	서초	3.18	2.67		이천	0.42	0.52
강남	3.72	3.26	안성	0.38	0.38		
송파	1.67	1.56	김포	0.60	0.54		
강동	0.81	0.60	양주	0.30	0.30		
경기도	장안	0.78	0.78	여주	0.46	0.47	
	권선	1.08	1.41	화성	0.94	1.01	
	팔달	0.54	2.01	연천	0.31	0.29	
	수정	0.42	0.62	광주	0.40	0.18	
	중원	0.85	1.85	포천	0.26	0.27	
	분당	1.61	2.89	가평	0.39	0.40	
	의정부	0.51	0.42	양평	0.32	0.42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강원도	인제군	0.35	0.32		포항남	0.55	0.47
	고성군	0.21	0.18		포항북	0.56	0.33
	양양군	0.22	0.40		경주시	0.40	0.31
충청 북도	상당구	1.00	0.84	경상 북도	김천시	0.33	0.21
	홍덕구	0.78	0.53		안동시	0.57	0.52
	충주시	0.57	0.42		구미시	1.14	1.70
	제천시	0.42	0.30		영주시	0.49	0.26
	청원군	0.20	0.63		영천시	0.29	0.30
	보은군	0.21	0.21		상주시	0.07	0.25
	옥천군	0.18	0.30		문경시	0.35	0.36
	영동군	0.25	0.32		경산시	0.60	0.55
	진천군	0.24	0.11		군위군	0.35	0.10
	괴산군	0.16	0.17		의성군	0.22	0.16
	음성군	0.26	0.22		청송군	0.19	0.26
	단양군	0.21	0.67		영양군	0.29	0.25
	증평출	0.25	0.18		영덕군	0.25	0.37
	천안시	0.53	0.46		청도군	0.20	0.16
	충청 남도	공주시	0.50		0.55	경상 남도	고령군
보령시		0.29	0.19	성주군	0.20		0.14
아산시		0.36	0.19	칠곡군	0.63		0.74
서산시		0.36	0.23	예천군	0.29		0.21
논산시		0.27	0.29	봉화군	0.15		0.13
금산군		0.19	0.18	울진군	0.29		0.41
연기군		0.52	0.27	울릉군	0.27		0.24
부여군		0.31	0.34	창원시	0.88		0.90
서천군		0.21	0.15	마산시	0.89		0.65
청양군		0.35	0.35	진주시	0.62		0.50
홍성군		0.28	0.28	진해시	0.33		0.93
예산군		0.26	0.16	통영시	0.37		0.26
태안군		0.68	0.39	사천시	0.33		0.22
당진군		0.33	0.26	김해시	0.43		0.32
계룡시		1.71	1.78	밀양시	0.35		0.23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인천 광역시	중구	0.47	0.30	대전 광역시	달서구	0.32	0.62
	동구	0.48	0.25		달성군	0.11	0.11
	남구	1.05	0.54		동구	1.16	0.76
	연수구	0.51	1.02		중구	0.83	0.48
	남동구	0.83	0.60		서구	0.94	0.79
	부평구	1.40	0.59	유성구	5.50	4.05	
	계양구	0.73	0.33	대덕구	0.45	0.31	
	서구	0.79	0.45	광주 광역시	동구	1.12	0.97
	강화군	0.25	0.25		서구	0.85	0.73
	옹진군	0.12	0.32		남구	0.82	0.56
부산 광역시	중구	0.99	0.74		북구	0.70	0.56
	서구	0.34	0.21		광산구	0.31	0.30
	동구	1.11	0.66	중구	0.83	0.49	
	영도구	0.45	0.41	남구	0.72	0.70	
	부산진	0.77	0.63	동구	0.18	0.10	
	동래구	0.69	0.46	북구	0.18	0.13	
	남구	0.52	0.56	울주군	0.15	0.20	
	북구	0.41	0.30	춘천시	0.87	0.82	
	해운대	0.38	0.75	원주시	0.66	0.47	
	사하구	0.31	0.31	강릉시	0.53	0.45	
	금정구	0.70	0.62	동해시	0.38	0.25	
	강서구	0.57	1.08	태백시	0.38	0.38	
	연제구	0.80	0.58	속초시	0.53	0.43	
	수영구	0.75	0.58	삼척시	0.51	0.33	
	사상구	0.46	0.39	홍천군	0.27	0.34	
기장군	0.23	0.29	횡성군	0.26	0.40		
대구 광역시	중구	1.18	1.20	영월군	0.25	0.24	
	동구	0.60	0.75	평창군	0.39	0.77	
	서구	0.31	0.28	정선군	0.18	0.19	
	남구	0.63	0.86	철원군	0.33	0.36	
	북구	0.35	0.63	화천군	0.38	0.20	
	수성구	0.61	0.48	양구군	0.41	0.22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2000년 입지계수	2009년 입지계수
경상 남도	거제시	0.28	0.27	전라 남도	담양군	0.14	0.34
	양산시	0.25	0.26		곡성군	0.17	0.13
	의령군	0.15	0.16		구례군	0.35	0.36
	함안군	0.17	0.23		고흥군	0.26	0.23
	창녕군	0.19	0.24		보성군	0.19	0.17
	고성군	0.33	0.29		화순군	0.56	1.26
	남해군	0.34	0.47		장흥군	0.20	0.08
	하동군	0.19	0.19		강진군	0.17	0.34
	산청군	0.17	0.33		해남군	0.24	0.19
	함양군	0.27	0.27		영암군	0.15	0.11
	거창군	0.42	0.27		무안군	0.17	0.18
	합천군	0.20	0.30		함평군	0.23	0.10
전라 북도	완산구	0.92	0.68	제주	영광군	0.80	0.20
	덕진구	0.74	0.65		장성군	0.21	0.25
	군산시	0.36	0.27		완도군	0.18	0.30
	익산시	0.43	0.33		진도군	0.29	0.51
	정읍시	0.33	0.46		신안군	0.08	0.12
	남원시	0.35	0.44		제주시	0.62	0.65
	김제시	0.26	0.23	서귀포	0.43	0.37	
	완주군	0.16	0.17				
	진안군	0.14	0.24				
	무주군	0.80	0.34				
	장수군	0.16	0.12				
	임실군	0.15	0.28				
	순창군	0.14	0.30				
	고창군	0.30	0.22				
부안군	0.35	0.27					
전라 남도	목포시	0.53	0.48				
	여수시	0.40	0.30				
	순천시	0.43	0.37				
	나주시	0.35	0.31				
	광양시	0.43	0.30				